

제2의 전성기 허경환 "최근 광고만 4개...재미로 보답"

등록 2026.06.02 05:00:00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코미디언 허경환이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광고를 4개 찍었다고 했다.

허경환은 1일 방송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말자쇼'에 나와 근황에 대해 얘기했다.

허경환은 '최근 다시 전성기를 맞은 걸 실감하냐'는 물음에 "절대 그런 건 없다.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보답할 수 있게 더 재미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환은 '대세라는 걸 증명하는 게 광고 갯수다. 몇 개 찍었냐'는 질문엔 "한 4개 정도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즘 길게 안 찍더라. (광고 기간이) 3~6개월 이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절 바뀌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말에 김영희와 정범균은 "우린 0개다. 광고주분들 기다리겠다. 3~6개월이라고 불만 없다. 저흰 일주일도 된다"고 말했다.

허경환은 '개그콘서트'에서 '거지의 품격'을 할 때 김영희와 얽힌 광고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허경환은 "지금까지 마음 속에 담아뒀던 광고 이야기를 상담하고 싶다. 제가 예전에 '거지의 품격' 출연 당시 광고주가 '허경환 씨와 김지민씨만 찍으면 안되겠냐'고 섭외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당시 '거지의 품격'은 허경환과 함께 김지민 그리고 김영희가 함께하는 코너였다.

허경환은 "'셋이 찍지 않으면 저희는 안겠다'고 말했더니 광고주 쪽에서 '그럼 저희도 찍지 않겠다'고 해서 '그럼 둘이서 찍겠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이걸 차마 김영희씨에게 이야기를 못했다. 김영희씨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다. 그때 말주변이 없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못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